

#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전략\*

The Marit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홍성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arit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Korean 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12 female immigrants and 5 Korean me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emale participants suffered from marital conflicts with their spouses, conflicts with mothers-in-law, stereotyped gender roles as a wife and a daughter-in-law, economic conflicts,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ir country. In addition, male participants reported conflicts from economic support for their wife's family, gender role differences, and cultural differences.

Coping strategies used to deal with the conflicts, such as mutual dedication and understanding their spouse's stance, and developing a compromise for the family's happiness were mentioned. A personal positive nature and attitude helped them to meet the marital conflicts. Supports from their husband, parents-in-law, and society also helped female immigrants to adapt to cultural differences. However, some of them used negative coping strategies which did not reduce conflicts, and resulted in separation and divorce.

The c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onflicts depended on the participant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78)

\*\* 주저자, 교신저자: 홍 성 희 (hsh@kmu.ac.kr)

personal ability. While female participants who had English language skills took advantage to adapt to Korean society, those who did not have any other natural abilities could develop a definite position in their family and society with their diligence and positive attitude.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participants who were supported by their family and society tended to cope successfully with conflicts and also showed that multicultural families' marital adjustment was maintained with their efforts as well as by relationships with their relatives and society.

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ie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s), 갈등대처전략(c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onflicts)

## I. 문제의 제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내는 시도(강유진, 1999; 설동훈 외, 2006; 홍달아기 외, 2006)부터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문화적 차이 및 갈등에 대한 연구(김오남, 2006; 김이선 외 2006; 박경동, 2007), 이주여성과 가족의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아진 외, 2011)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논의는(신경희 외, 2006; 최연실 외, 2007; 현은민, 2007; 김은경, 2010; 이아진 외, 2011)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입국 초기의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원만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는 가족 형성과 유지의 기초가 된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부부가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타협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부부관계를 정립하게 되는데, 국제결혼은 문화적 차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내국인 간의 결혼보다 더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부부관계측면 중에서도 부부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부부에게는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다(김은경, 2008). 또 부부관계보다 친족관계가 우선하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제, 부계혈통주의, 남성우월사상 등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편입과 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적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최연실, 2009), 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안정성이 내국인 부부보다 매우 낮음을 지적한다. 연령,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김두섭·이명진, 2007), 단기간 결혼 성립으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신경희 외, 2006; 김현숙, 2006)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홍달아기·채옥희, 2006)등은 원만한 부부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또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가사노동은 부부관계를 불만스럽게 하며, 상이한 가족제도과 문화는 이들에게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요구하여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킨다(김이선 외, 2006). 그러므로 국제결혼 부부의 언어, 관습,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와 한국사회의 독특한 가족문화, 성 역할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2002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건수는 380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7962건으로 7년간 21배 증가하여, 전체 이혼의 9.7%를 차지하는(통계청, 2009a) 것을 볼 때 같은 기간 동안 내국인 부부의 이혼건수가 19.6% 줄어든 것에 비하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09b).

그러나 김은경(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인 남편의 지지, 성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가 중앙치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부정적 상호작용 요인인 남편의 적대적 행동은 중앙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부부에 문제 또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우려와 견해가 편견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동훈 등(2006)의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이혼을 급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부부에 따라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요인과 반대로 갈등을 노출시켜 부부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가족을 해체시키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국제결혼부부의 구체적인 상황과 생활경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부부관계는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한 축으로서 부부갈등에 대한 관심은 갈등의 원인, 갈등에 대한 대처로 나누어 질 수 있다(김오남,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의 갈등을 드러내거나 봉합하면서 현재

의 부부관계를 정착시키게 되었는데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부관계로부터 기인된 갈등요인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들은 어떤 기제와 전략을 사용하는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갈등 관련 이론

#### 1) 자원이론

Blood와 Wolfe(1960)의 자원이론에 의하면 이주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외적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가정 내 권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자원에는 교육수준, 수입, 직업, 의사결정능력, 개인의 매력도, 가정에서의 역할, 동반자적 능력, 성생활 능력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포함된다. 이중 경제적 자원은 개인별 차이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물질적 요소로서 자원이론이 특별히 주목하는 요소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개인의 힘이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Blood & Wolfe, 196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반적인 자원에 언어와 국적 등이 더해져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젊을수록, 그리고 가난한 나라 출신이 아닐 경우 가정 내 지위가 높아진다(김현숙, 2006).

사회적 지지도 부부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새로운 문화에 이주해온 이주 여성은 배우자, 부모, 친척과 정신건강전문가 등 상호독립적인 지지체계에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jivar, 2000). Chinitz와 Brown(2001)의 연구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결혼의 안정성과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안정성을 강화시키며 갈등을 감소시키는 주요요인이었다.

## 2) 성역할이론

성역할이론에서는 여성의 자원과 상관없이 부부관계가 결정된다고 본다(Scanzoni & Szinovacz, 1980, 조혜선, 2003).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한다면 경제적 자원은 부부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가부장권을 중시하는 남성일 수록 아내의 취업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김오남, 2006)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증가되면서 남편의 전통적 가부장적 성역할태도와 불일치될 때 부부간 갈등과 긴장을 야기시킨다(Min, 1998).

성역할관은 보수성과 진보성으로 구성되는 연속선상에서 개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성은 재정적 부양자, 여성은 가정의 책임자로 규정된 전통적인 전형화가 성역할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역할관에 따라 가족 내에서 남편 혹은 부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평가되고 상대방에 대해 다른 기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성역할관은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혜선, 2003).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가정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이주여성에게 규정되는 지위와 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성역할과 관련된 가사노동 분담도 부부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가사분담의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갈등요인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나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불공평성 인지는 부부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순, 1994; Mahler, 1995; Min 1998; Kluwer et al., 1996).

## 3) 관계성이론

김오남(2006)은 가족 내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구성되기보다 상대적으로 구성되므로 자원이나 부부의 성역할태도보다는 의사결정과정과 맥락에 따라 각 요인들의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소홀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부부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이주여성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관계성에 근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즉, 관계성이론은 부부의 가치관과 생각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부부관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배우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행동과 같은 과정과 맥락에 주목한다(Godwin & Scanzoni, 1989). 이러한 관계성 이론은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의사소통, 의사결정, 긴장관리 등의 내적 과정을 주로 다루는(남복현, 2010) 상징적 상호작용론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있다.

결혼생활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공존하는데,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는 배우자의 지지와 의사소통이,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는 배우자의 적대적 행동이 있다(Abby et al., 1985을 현은민, 2007에서 재인용). 현은민(2007)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교환하는 부정적 상호작용행동이 결혼생활의 어려움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 갈등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이혼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에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의사소통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의 반응에 주목하고 배우자의 가치와 기준에 흥미를 보여주며 자기목표 달성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관심도 배려하는 통합적 능력을 의미한다(Canary & Spitzberg, 1989).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부부갈등의 증가 및 심화로 이어지게 되

고 심한 경우 폭력이나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김득성 외, 2000). 특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부부가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결혼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나, 국제결혼부부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이주여성의 능숙한 언어 사용은 부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며(Ataca & Berry, 2002), 또 새로운 문화에 정착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다(Goldman, 1999; Nah, 1993).

#### 4) 문화적응이론

기존의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자원이론이나 영역이론은 국제결혼부부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부부는 내국인부부에 비해 언어와 문화적 배경, 의사소통능력 등에서 큰 차이를 느끼고, 이러한 차이가 부부관계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현숙(2006)은 문화적 차이는 국제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의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갈등의 개연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이주자의 문화적응은 정착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이민자의 출신국, 이민의 동기, 정착국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의 대처능력, 자원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김연수, 2007).

이주민의 문화적응상태를 유형화한 Berry(1976)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조합한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면 통합, 모국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 모국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변화로 보았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을 경험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

와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적응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서는 내적, 외적 요인인 스트레스에 바탕을 둔 심리적, 문화적 스트레스를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한다(김오남, 2006).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다.

국제결혼한 부부의 문화적 태도와 행동 간 차이는 부부 모두의 삶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원이다(Johnson & Warren, 1994). 이주여성들이 느끼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부부갈등으로 양선화(2004)는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과 적응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경희 등(2006)도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방식, 친족관계, 문화와 전통, 관습에서 오는 오해 등 다방면에서 부부갈등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남편은 초기에는 문화 차이를 인정하나 언어와 식생활의 차이 정도로 인식하며, 부인의 빠른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2.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

Sprey(1971)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희소자원, 경제적 수단, 양립 불가능한 목적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개인, 집단 간의 적대감으로 정의된다. 즉 부부갈등을 이익이 상충되는 부부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쟁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Sprey(1979)는 부부갈등이 무조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기 보다 어떻게 관리되어 갈등을 조절하면서 결혼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가족관계 입장에서 부부갈등은 자신의 욕구가 배우자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으로,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을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Christie(1981)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배우자의 태도

및 가치의 유사성 또는 차이가 항상 갈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건설적인 갈등부터 파괴적인 갈등의 사이에 있다고 하였다. 이때 건설적인 갈등이란 서로의 관심, 정보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갈등에 대한 창조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융통성을 보이는 애정적이고 신뢰 있는 태도 등이며, 파괴적 갈등은 갈등을 증대시키는 경향에 의해 유형화되는 권력전략과 상호 의심, 의사소통의 부족을 유도하는 위협, 강요와 기만 책략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갈등 개념은 갈등의 부정적 기능뿐 아니라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Allman(1978)은 부부갈등을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발전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두 사람이 관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성관계, 시댁문제, 경제문제 등의 갈등을 의미한다. 기능적 측면의 갈등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일치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욕구가 행동과 일치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발전적인 측면은 개인이 가족, 부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김오남(2006)은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며 장기적인 결혼기간, 현실적인 생활조건, 복합적인 인간관계, 환경적 변화 등 부부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중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 조선족여성들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중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가장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활습관, 언어장벽에 가장 큰 갈등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제문제, 성격차이, 폭언 및 폭력 순으로 보고하였다. 손은목(2004)의 조선족여성의 부부갈등연구에서도 의사소통과 문화적 요인 등이 부부갈등의 변수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

제가 없는 조선족여성들도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갈등을 겪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경희와 양성은(2006)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 중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과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통제수단으로서 국적취득 연기, 아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면 다루기 힘들어지거나 가출할지도 모른다는 문화적 적응에 대한 양가감정, 경제권을 공유하지 않으며 친정에 경제적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 등 일반적인 국제결혼부부에 비해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옥희와 홍달아기(2007)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을 가난, 남편의 음주와 폭력, 늦은 귀가, 장애, 시부모의 며느리 외출을 금지, 동서의 시집살이 등으로 보고하였다. 이 아진과 최연실(2011)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중 정서적 측면의 갈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난, 자녀, 시댁식구, 남편태도, 남편행동의 순이었다.

호주 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갈등과 재정을 살펴본 Woelz-Stirling(2000)은 여성의 결혼결정이 미래 남편의 상대적 부의 인지에 의해 영향 받으며, 자신의 친족에 대한 지지 제공 능력과도 관련되었다. 또한 비현실적인 경제적 기대, 친정 송금,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반대, 가계재정 등의 재정적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정적 갈등은 문화적 태도라는 배경 하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돈을 버는 행위나 재정의 통제 및 분배는 문화에 따라 다르고, 계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성과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경우도 극심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였으며, 풍습이나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 요소만이 아닌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계, 자녀양육방식 등의 비물질적인 요소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Lee, 1996).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국제결혼여성의 부부갈등의 주요문제는 남편과의 가치관의 차이, 남편의 생활태도와 폭언, 폭력 등 부부간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력, 자녀양육, 시부모와의 갈등, 문화동화에 대한 강요 등 구조적인 문제나 가족제도, 가족문화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되었다.

### 3. 갈등대처전략

결혼이주여성의 갈등대처전략사례를 분석한 홍달아기와 채옥희(2006)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갈등대처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이상으로 결혼지속기간이 긴 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일을 하고 있거나,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갈등을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5, 6년 정도의 여성들은 갈등대처방법으로 수다와 쇼팽을 듣고 있어 자국민이나 친척들과의 만남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년 이하로 짧은 경우 남편의 배려가 큰 전략이며, 자국민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좋아하는 갈등해소방법이었다.

김희주와 은선경(2007)이 조사한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생활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편과 자녀 등 가족에게 더욱 헌신하고, 한국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남편이나 한국인과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필리핀 여성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지를 얻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대처전략을 구사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결혼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동(2007)은 광주·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갈등대응전략을 사례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대응전략은 차별적이었다. 즉, 남성은 가족유지라는 명분으로 부인에게 일방적 적응을 요구 또는 강요했고, 심할 경우 물리적 폭력으로 통제하려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다양한 문

화적 공존이 가능하리라 예상했던 다문화가족이 오히려 가부장적 지배질서를 재생산하고 지배문화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통제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국 남성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취하는 강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다. 반면, 이주여성들은 인내, 타협의 소극적 대응에서부터 취업을 통한 주체성 탈환, 내부 네트워크 형성 등의 적극적 대응을 시도했다. 또한 인내와 타협이라는 갈등대응방식은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었는데,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남편은 자신의 방식을 잠시 보류하고 아내의 적응기간을 참고 기다리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최연실 외(2007)의 한·중 국제결혼부부의 갈등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로 유입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부부 또는 이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문화적 차이는 양국으로부터 발생된 것인데, 이들이 결혼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 처지가 개선될 때까지 인내, 배우자의 입장 이해, 성찰, 변화 시도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여 결혼생활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부부간 소통을 확립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자기정체감 유지와 상대방 문화 수용 및 동화의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조건인 두 문화를 결합하여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자각하고 이를 누리는 복합성의 향유도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혼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소통과 화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국제결혼부부의 갈등대처전략으로는 다양한 전략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성별이나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특히 개인적 자질과 의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부갈등과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대처하는 기제로 사용되는 전략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잠재되어 있는 부부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거나 또는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어떻게 갈등상황에 적응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는지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의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서 나타나는 부부갈등양상은 어떠한가?
2.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갈등대처전략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 심층면접의 결과를 Wolcott(1994)의 자료 변형의 세 가지 측면, 즉 기술과 분석, 그리고 해석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기술은 사례별로 주요 내용들을 추출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거쳐 사례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기술하며, 분석단계에서는 기술 단계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강조하고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할 수 있다. 해석은 앞 단계에서 축적된 자료로부터 ‘자료 이상의 것’을 탐색하며, 자료를 변형하고 추론을 끌어내는 단계이다(조흥식 외, 2010).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양상과 갈등대처전략에 대해 각각 기술한다. 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갈등과 갈등대처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적 맥락을 분석한다. 그리고 각 사례의 특징

과 사례 간 비교를 바탕으로 갈등과 갈등대처전략의 관련성, 관련이론과의 비교, 전망 등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결론에서 진전시킨다.

#### 2. 면접대상자의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방법은 심층면접이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로는 대구광역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수강했거나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3년 이상 체류 결혼이주여성들 중 참여의사가 있는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출신국,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였다(표 1 참조). 또 결혼상태와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자를 표집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들로부터 가출 또는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소개받았다. 남성대상자로는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남편 또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이주여성의 남편으로서 남편자조모임의 구성원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5명을 대상으로 1회의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집단면접은 이주여성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사 등을 타진함으로써 심층면접의 내용과 범위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면접내용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면 결혼동기로부터 결혼초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 적응상태, 적응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서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공감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2명의 이주여성과 5명의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적 경험의 다양성과 한국어능력에 따라 1회에서 3회의 면접을 시도하였다.



〈표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출신국	직업	시부모 동거여부	자녀수	결혼기간
1	부인	32	베트남	다문화강사	O	3	8년
	남편	48		자영업			
2	부인	25	베트남	통번역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O	1	5년
	남편	37		회사원			
3	부인	30	베트남	무	O (시부 동거)	0	5년
	남편	48		개인택시기사			
4	부인	28	베트남	다문화강사	O	2	7
	남편	38		생산직 근로자			
5	부인	27	베트남	무	X	1	4년
	남편	44		생산직 근로자			
6	부인	25	베트남	생산직 근로자(임시직)	X	0	5개월(가출)
	남편	39		-			
7	부인	24	베트남	생산직 근로자(임시직)	X	0	10일(가출)
	남편	38		-			
8	부인	41	조선족	통번역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X (초기동거)	2	14년
	남편	41		생산직 근로자			
9	부인	33	중국	무	X (초기 동거)	2	7년
	남편	40		생산직 근로자			
10	부인	35	몽골	생산직 근로자	X (초기동거)	1	7년(이혼)
	남편	48		-			
11	부인	46	일본	무	X (중기동거)	2	16년
	남편	52		생산직 근로자			
12	부인	29	조선족	무	X	2	4년
	남편	38		생산직 근로자			
사례1	부인	42	중국	무	X	3	11년
	남편	42		자영업			
사례2	부인	22	베트남	무	X	1	3년
	남편	35		퀵서비스기사			
사례3	부인	22	베트남	무	X	1	3년
	남편	39		생산직 근로자			
사례4	부인	23	필리핀	영어개인교습	X	2	4년
	남편	31		회사원			
사례5	부인	28	캄보디아	무	X	1	3년
	남편	47		버스기사			

\* 사례 1-5는 한국남성사례임

## IV. 결과 및 해석

### 1. 부부갈등의 양상

#### 1) 부부의 가치관 및 태도의 차이

결혼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두 개인의 결합으로, 결혼생활에는 공통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서로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배우는 상호적응과정이 필요하다(김현숙, 2010).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태도, 가치, 행동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주여성들이 지적인 남편과의 갈등의 원인은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과 부부간 의사소통 부재(사례 1, 3, 4, 8), 일상생활에서 아내와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관심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부재, 아내가 경험하는 문화차이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 무관심(사례 1, 3, 4, 10), 지나친 음주습관 같은 생활태도(사례 1, 3) 등이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는 결혼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함께 하면서 감정을 공유하는 배우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아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며 부부갈등을 악화시킨다. 또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거나 국제결혼 한 남편으로서 외국인 아내의 가족적응이나 사회문화적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회피할 때 외국인아내로서 무시당하는 느낌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회의가 커진다(사례 1, 3, 10).

**<사례 1>** 제일 속상한건 제 생일도 생각 안 해줘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그만 해라’...집에 있으면 ‘아 힘들어, 그냥 집에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시간 있으면 아내한테 공원에 바람도 좀 쐬어주고, 그러면 마음이 좀 좋잖아요... 다른 남편은 ‘베트남 음식점 어디에 있어?’ 궁금해 하는데, 우리 남편은 관심 전혀 없어요.

**<사례 3>** 남편이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술 많이 먹지 마라’. 남편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욕도 하고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아무 말 안했어요...같이 하는 것은 없어요. ‘같이 가요, 시장도 가고요.’. 근데 안 가고요. 어디 가든지 제가 알아서 해요.

한편 <남성사례 4>의 경우 대부분의 한국인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 장기계획, 미래를 위한 저축, 자녀교육 대비 등에 대해 자신의 아내가 필요성을 공유하거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아내와의 갈등을 자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아내가 외국인으로서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해 한국여성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남성사례 4>** 가정을 이루었고, 부양해야 할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체크를 하든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없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부터는 많이 들어갈 텐데.. 대학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물었을 때 와이프는 대안이 없어요. 저만 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언성을 높였던 경우도 많아요...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대비책이 없어요.

이렇듯 부부간에는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이로부터 기인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로 충돌하거나 갈등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면접대상자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언어소통의 한계와 한국남성 특유의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성격에서 오는 아내와의 대화 부재,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지 않는 상호작용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다.

## 2) 역할갈등

남녀의 성역할이나 가족 내 역할은 문화권이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에서는 모두 남녀가 평등하고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낮설음’과 모국에서의 성역할과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이주여성들의 나라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며, 따라서 부부가 같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자연스럽게 같이한다고 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고정적인 성역할에 따라 남편은 대부분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든 가사노동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초기에는 남편과 시부모의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아내역할, 며느리 역할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웠음을 토로하였다. 더구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사를 책임지는 한국적인 며느리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갈등이 극대화되었다(사례 3).

한편 한국남성사례에서는 시부모에게 순종하는 며느리 상을 바라며, 고부갈등을 아내의 기질 탓으로 돌리는 전통적인 성역할관념이 나타났다(남성사례 1).

입국한지 오래된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의 성역할갈등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한편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출신국과의 차이로 혼란을 겪으며 남편과 의견차를 경험하기도 했다(사례 11). 한국여성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전담하며 자녀교육에 대해 강한 ‘철학’을 가지고 전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극성스러운’ 조기 교육열과 남편으로부터 ‘전권’을 받아 자녀를 훈육하는 역할이 한국남성에게는 자연스러우나 외국인아내에게는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역할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에 출신국과는 매우 다른 성역할관념으로 인해 남편들이 요구하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에 적응하기 어려운 갈등을 경험하며, 아내의 역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 요구되는 며느리 역할이나 어머니 역할에서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사례 3>** 우리나라는 틀려요. 남녀 똑같잖아요. 남편이 '여기는 아니야.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야. 다 그래'.... 제사는 내가 지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도 못하고 진짜 잘 모르잖아요.

**<남성사례 1>** 중국여자들이 기가 많이 세거든요. 고부갈등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어른이나 시부모가 뭐라고 하면 일단 잘했던 잘못했던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교육이 미리 안 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싸웠죠.

**<사례 11>** 남편은 한국 엄마들은 애들한테 무섭게 한다고, 저보고 무섭게 하라고 하고 때리라고 하고... 때리는 건 좀.. 일본은 많이 안 때리고 체벌 없어요... 역시 제가 이렇게(일본식으로) 자라서 일본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일본에서는 아빠가 무섭게 해요.

## 3) 경제적 갈등

경제적 갈등은 경제권, 친정 지원, 생활비, 저소득, 부채 등 다양한 이유에서 표출되었다. 일부 사례(사례3, 10)에서는 이주여성이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부부의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며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은폐는 아내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과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권에 대한 통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중 조선족여성(사례 8)이나 일본인여성(사례 11)은 결혼 초부터 남편이 ‘통장’을 맡겼다. 반면 결혼 5년차인 베트남여성(사례 2)의 경우 남편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월급통장을 맡기지 않으며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지만 이를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즉 ‘경제권’을 주지 않지만 이 여성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제권에 대한 갈등이 부부 간에 심각하게 표면화되지 않는 것에 비해 모국가족에게 송금을 기대하는 아내와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남편은 각각 상당한 수준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었다(사례 1, 2, 3, 4, 남성사례 2, 3, 4). 송금으로 인한 갈등상황은 상당히 지속적이며, 남편 뿐 아니라 시모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으며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인남성은 여성과 그 가족의 무리한 송금 요구가 계속되자 결혼동기나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본국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일본인여성(사례 11)은 가족에게 송금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상황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2>** 제가 통장관리를 하는데, 모두 다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아마 따로 통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요.... 친정에 송금을 해야죠.... 처음에는 남편한테 이야기 했어요. 음.. (남편의) 기분이 괜찮았을 때도 있었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돈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남편 생각에는 ‘왜 그렇게 송금을 자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 안 좋았죠.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어요... 조금 기대했어요... 남편이 아껴서 쓰는 모습을 보니까 ‘돈을 많이 안 쓴다, 돈 많이 없나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주면 좋은데, 많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그 기대는 없어졌어요.

**<남성사례 3>**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식구들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염치없이 친정집을 계속 도와주기를 바라는 풍토거든요. 돈 주려고 결혼 한 것은 아닌데 계속...처음 2년 정도 그랬어요. 안부처 주면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챙겨 달라는 거예요. 일 년에 10번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제 동생한테 까지 ‘용돈 주세요.’라고... 장인이나 장모, 그리고 이모들이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무슨 제사다, 기념일이다. 너의 남편한테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고 해라’...

#### 4) 가족원의 간섭과 통제로 인한 갈등

시부모나 시누이들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고 이를 통해 이주여성을 통제하려는 태도와 행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어렸을 때부터 과보호로 의존적인 아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간섭하면서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실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며(사례 10), 모국인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며느리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외출까지 통제하는 것이 가족의 역할로 당연시되었다(사례 3, 5). 이에 대해 여성은 성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모국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였다. 더 큰 문제는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남편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 대해 개입할 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사례 10). 또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입국 초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이주여성의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사례 3).

이와 같이 시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외국인며느리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언행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지만 이를 남편이 중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는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처를 주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례 10>** 남편이 외아들이었어요. 뭐든지 엄마, 누나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 있어도 시댁 식구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월급을 어머니한테 주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자’고 말하면 남편은 누나들한테 가서 ‘아내가 월급 관리하고 싶대’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나들이 ‘네가 아직 잘 모르니까 어머니가 해야 돼’라는 식으로 한명씩 와서 말해요. 한 가지 이유를, 그때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말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사례 3>**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제가 한국문화도 한국말도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이 없어요. 시누이가 이런 말도 했어요. ‘오빠 나이도 많은데, 언니는 애기도 왜 안 낳아? 애기 안 낳을 거면 시집도 오지 말랬잖아!’. 진짜 속상했어요.

### 5) 고부갈등

고부갈등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일상생활 방식과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문화 차이와 같은 사소한 일로부터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 2>의 경우도 첫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방식에 대한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갈등을 겪은 후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갈등상황이 재연될 것을 미리 걱정할 정도로 고부갈등은 이들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원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편에게 갈등을 호소하고 중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나 남편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사례 3, 10, 11)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언쟁으로 이어질 만큼 고부갈등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부간에는 세대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과 갈등이 늘 발생할 수 있는데 외국인 며느리의 고부갈등은 여기에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남편의 중재역할 회피에서 오는 문제들이 더해져 갈등상황이 깊어지는 것이다(사례 3, 4, 10, 11).

더구나 최근 한국가족의 유형은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으로서 친족관계가 약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가장장적인 유교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에서 고부갈등이 비일비재함을 보여준다.

**<사례 11>** 둘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살았는데, 많이 안 도와주고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저는 시례기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오라고 하니깐...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애를) 그냥 놔둬요. 아니면 애가 과자 먹고 싶다고 하면 계속 주고, 일본에서는 식사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참았어요. 그러나 많이 화내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 6)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은 의식주생활과 관습, 생활태도, 가족문화, 자녀양육 등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나 하루 세끼의 식생활과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다보니 늘 잠재적인 갈등원이 될 수 있다(사례 11). 조사대상 여성들(사례 9, 10)은 하루 세끼를 차려내고 시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식생활문화나 며느리역할에서 생소하고 다른 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한국인남성들은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자녀양육방식조차 모르는데다 알려주어도 쉽게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해하면서(남성사례 2) 한국인 부모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방치하는’ 양육방식을 ‘문화적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작게는 남성들이 인지한 아내의 독특한 성격(남성사례 1, 5)이나 크게는 우리나라와 다른 자녀양육방식, 가정에 대한 개념 인식의 차이는 아내의 개인적 기질과 경험에 기인한 특성일 수도 있으나, 이들은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이나 공통적인 ‘국민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남성사례 1, 2, 4, 5)

**<사례 9>** (시아머님이 다 해 놓으신 음식을 차리는 것도) 저는 불편했어요. 꼭 그 시간을 지켜서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시간 지켜서 밥 먹는 거 없고 자기 편한 시간에 먹어요.

**<남성사례 3>** 우유를 먹이면 엄마가 트림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기초적인 그런 것조차 모르더라구요. 그걸 안 해줘서 둘 때까지 몇 번 입원을 했어요.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재 까지도 많이 안 해주고 제가 (집에) 가야 쓰다듬어주던지 그런 상태입니다....자기 나라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남성사례 5>**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쉽게 평장히 잘 빠지더라고요. 조금만 그러면 자기 성질대로 성질 내고 참을성이 많이 부족해요, 한국사람 보다는...

## 2. 갈등대처전략

이상의 갈등양상에 대해 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들은 어떤 기제와 전략으로 대응하거나 해결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그들의 갈등대처전략에 대해 기술한다.

### 1) 상호이해와 양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방지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성격과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양보심을 발휘하여 대처하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결혼생활의 연륜이 쌓이게 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파악과 이해의 기술이 축적될 수 있으나 화목한 부부관계는 연륜과 기술의 문제이기 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장점이나 자신을 배려해준 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더 중요한

덕목 위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사례 2, 8, 남성사례 4). 조선족 여성인 <사례 8>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었지만 워낙 과묵하고 의사소통에 서툰 남편이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 많은 불만을 토로했으며, 남편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오랫동안 부부싸움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의 스타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태도를 바꾸어 남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게 보려고’ 노력하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부부의 갈등이 줄어들었다.

**<사례 8>** ‘저 사람 성격이 이런 거라’ 인정하면서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분명... 6, 7년 되니까 스스로 터득하게 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도 그랬을 거야’. 좋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힘들기만 하고 해결된 게 없고 그럴잖아요. 관계가 더 악화되고,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편하게 되고..

### 2) 타협

주요한 경제적 갈등원이었던 송금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주로 아내의 취업과 스스로 송금할 수 있게 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사례 2>는 첨예한 갈등요인인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남편이 지속적으로 친정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기대수준을 낮추고,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송금하는 것이 더 ‘땀땀하다’고 생각한다. 즉, 일을 하고 수입이 있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입을 저축해서 친정에 송금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송금으로 인한 갈등이 봉합된 상태이다. 모국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욕구와 책

임감이 컸던 여성들(사례 2, 3, 4)은 남편과의 송금을 둘러싼 갈등을 대부분 자신들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송금하며, 더 이상 처가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남편이 아내의 수입 관리와 송금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은 상태이다.

**<사례 2>** 송금을 2년 동안 매달 했어요.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상관하지 않아요. 저금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례 11>은 시모를 부양하는 며느리 역할에 대해 남편과 가족원들에게 시모 부양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타협’을 한 경우이다. 시모 부양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남편이 증재하지 못하자 가족회의에서 자신의 의지를 알리고 관철시킴으로써 시모와 동거하는 동안 힘들고 부당했던 며느리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던 남편과의 갈등을 스스로 해소하였다. 즉, 고부갈등과 역할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전략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여성들이 남편을 대신하여 시부모를 부양하는, 한국여성도 하기 힘든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화된 모델에 맞출 것을 기대 받게 된다고 지적한 박경동(2007)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인다.

**<사례 11>**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못하니까, 남편한테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많이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오고...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일본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 했어요. 제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남편에게 몇 번 이야기해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시부모님 집 있으니까 그리로 보내라고...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갈등은 성역할 인식의 차이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성역할이 흔히 표출되는 대상이 가사노동

인데, 여성에게 전담되는 가사노동에 대해 분담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한국인남편은 일부 가사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역할 갈등과 불화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남성 사례 4). 이러한 전략은 부부 상호간에 교환된 타협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사례 4>** 애도 봐야 되고, 청소, 빨래, 설거지, 자기 일을 다 하려고 하나까 어느 순간 뺨 터트리 버리더라고요. 울고.. ‘왜 내가 다 해야 되나?’. 사소한 것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침에 방하고 마루하고 닦아 놓고 일을 가죠. 와이프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가정불화로 이어질 것 같아서 쓰레기나 청소를 다 하고 있죠. 돌아오면...

### 3) 남편과 시부모의 지원

내국인부부와 달리 문화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은 남편과 시부모의 지원에 의해 완화되고 해소되었다.

<사례 2>의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베트남 음식과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지원받고 있으며, <사례 9>와 <사례 12>는 남편과 시부모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와주고 여성의 학업을 지원하는 등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정서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부모의 배려를 바탕으로 ‘딸처럼 잘해주신다’, ‘같이 살고 싶다’고 할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편과 시부모의 지원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방지할 뿐 아니라 가족을 유지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반면 남편의 역할 부재와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부부갈등이 컸던 <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시모가 아들을 대신해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와주고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하며 며느리를 칭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남편의 부재’로 인한 갈등을 다소 완화시키며 확대가족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사례 2>** 다른 남편과 달리 우리 남편은 베트남에서 사간 베트남어 책 두 권을 공부해 지금은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남편도 모두 다 잘 먹는 거 아니지만, 많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제가 해줘요. 시어머님께 한가로울 때 베트남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 드려요.

**<사례 1>** 시어머니 매일 저한테 ‘고맙다’ 말해요. 식구들 만나서 저 힘들고 밖에서 돈도 벌고 집에 와서 밥도 하고 그런데 징징거리는 거 없어서... 항상 ‘고맙다’고 그래요.

#### 4) 긍정적 성격과 헌신적 노력

이주여성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모국을 떠나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부모와 동거하거나(사례 2, 4), 재혼인 남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사례 1), 또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스스로 갈등을 잠재우며 한국어나 한국생활적응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 나가는 데는 인내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남다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사례 4, 8). 또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품과 같은 개인적 자질이 결혼이 주라는 새로운 도전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사례 2, 4, 8, 9, 12)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한국인남성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한국사회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노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남성사례 3). 일부 이주여성들이 토로한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와 아내의 적응을 도와주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들의 모습(사례 1, 3, 4)과는 달리 본 연구의 남성대상자들은(5개 사례) 국제결혼을 위해 사전에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따라서 입국 후 아내의 생활 적응과 문화적응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남성사례 3).

**<사례 1>** 결혼했을 때 전처 아이들이 12살하고 14살, 많이 힘들었어요. 딸이 좀 괴롭혔는데... 지금은 좋아요. 편지도 써줘요. ‘그땐 어리니까 엄마 괴롭히고.. 엄마가 착하고 마음 넓어서 나 이해해주고, 같이 살면서 우리 가족 행복한 거 감사하고, 자기 엄마보다 더 좋아서 감사하다’고..

**<남성사례 3>** 남자 분들은 보통 ‘테리고 오면 잘 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남녀들도 결혼하면 생각, 생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이차도 엄청나고 외국인끼리 결혼하는데, 남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문화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한국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5) 문화 적응

비교적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사례 1, 2, 4, 8, 9, 12)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성역할을 수용하는 태도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적응태도를 보임으로써 초기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결혼 초기에 음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사례 9>는 중국음식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조미료를 쓰지 않는’ 한국음식이 한국생활에서 ‘제일 좋은 점’이며, 중국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다고 할 만큼 처음부터 식생활에 수용적이었다. <사례 2>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성역할이나 남편과 시모의 의존적 관계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응적 태도를 보였으며, 남편의 역할 부재와 아내에 대한 무관심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포기’ 의사를 보였던 <사례 1>이나



<사례 4>의 경우도 한국으로 이주해온 자신이 먼저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을 소망이자 미래의 목표로 설정할 만큼 동화 의사를 보였다.

**<사례 2>**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남편과 아내 집안일, 직장 다니는 것 똑같이 해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공부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구나’ 이해하게 되었어요...시어머니가 아들만 편드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 한국의 문화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례 4>**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못살아요. 생각 바뀌야 되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면.. 무조건 따라야하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시집왔으니까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배우면 나중에 아이들도 배우고...

## 6) 사회적 성취

이주여성들 중 빨리 한국어를 익혀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례 2>나 조선족 출신으로 언어장벽이 없었던 <사례 8>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 아동양육교사 등으로 일하며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됨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족과 주위로부터 인정받으며, 한국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이들은 사회적 성취, 즉 취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사이버대학에 각각 진학하였으며, <사례 9> 역시 자신에게 필요하고 또 자녀에게도 좋을 것 같아 진학하였다. 자신이 가진 자원인 ‘영어’를 살려서 과외지도를 하고 있는 <남성사례 4>의 아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성취감을 얻을 뿐 아니라 수입이 생김으

로써 자신과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여성(남성사례 4)이나 일본인 여성(사례 11)의 경우 모국어라는 자원을 통해 한국인으로부터 ‘존중받고’, ‘배우고 싶은 언어로 인정받는’ 등 한국인과의 접촉과 한국생활 적응에서 다른 여성에 비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사례 4>의 아내는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처음부터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모국보다 ‘선진국’인 한국사회에서 ‘세계공용어’인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을 때마다 이를 비꼬며 한국어 교육을 거부했다. 현재는 자녀들이 말을 배우면서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있으나 그동안 미루어온 한국어 교육은 결국 한국문화에의 접근성이나 한국생활의 적응을 더디게 한 결과를 낳았다.

**<남성사례 4>**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러 보는 것이 좀 있고, 좀 더 존중하고, 조금 자신을 아래에 놓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만약 타 국가였다면 그런 시선이 있었을까? 존중감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촌도 영어선생님인데, (와이프가) 필리핀사람이다 보니까 더 빨리 친숙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타국가라면 그럴까요?

## 7) 사회적 지원

이주여성들이 받은 사회적 지원은 주로 거주지 인근의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과 모국인과의 네트워크였다. 이주여성들은 지역의 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접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사례 1, 4, 9, 11, 12),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 지원해주는 방문교육이나 아동양육과 같은 맞춤형서비스는 특히 입국 초기의 여성이나 임신과 어린 자녀로 인

해 ‘나오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되었다(사례 1, 4). 또 기관의 특화된 지원서비스인 경제교육, 성교육, 자녀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지원이 자신들에게는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사례 1, 2, 4, 8, 12).

한편 남편의 역할이 전무한 상태인 <사례 4>의 여성은 다양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열심히 배워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남다른 노력과 적극적인 성격으로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어를 매개로 한국사회를 배우고 있다. 또 기관의 관리자나 한국인교사들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좋은 프로그램에 추천되고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여성에게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언어나 문화적응을 위한 기능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능 이외에 남편과의 상호작용 부재를 대신해주는 정서적 지원 기능,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모국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었다(김현숙, 2006; 김희주 외, 2007, 박경동,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국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은 긍정적 사례 이외에 모국친구들의 모임에서 서로 남편을 ‘자랑’하고 ‘비교’한 부작용으로 친구관계가 소원해지자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게 된 사례(사례 2)가 나타났다. 또 절친한 친구 한두 명 이외에는 자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문제를 알려서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는 사례(사례 9, 10)도 있었다. 따라서 모국친구들과의 네트워크는 입국 초기에는 모국가족을 대신해 정서적 지지나 기초적인 정보 제공 등의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집단의 구성에 따라 역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 포기 또는 극단적 선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며, 상호 간의 타협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편에 대해 이주여성이 자포자기를 하게 되었다(사례 3, 4). 이러한 경우 여성 자신의 ‘포기’로 인해 그가 느끼는 갈등이 초기보다는 약화될 수 있으나 미래에 갈등이 해소되거나 다른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갈등원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례(사례 7, 10)에서는 남편이 성격장애, 경제적 무능과 도박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가졌거나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서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별거, 이혼, 가출 등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례 7> 남편도 술 먹고 저도 술 마셨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자고... 근데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니깐, 남편이 쫓아내버렸어요

## 3. 다문화가족의 관계 맺기

이주여성과 한국남성들이 결혼 초 경험하였던 부부갈등은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상호작용,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한 대처방식이나 전략들 또한 부부관계, 고부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면접대상자들이 보고한 부부갈등과 갈등대처전략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가 어떻게 시도되고 해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1) 부부관계의 정립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측면이었다(6개 사례). 이주여성들은 모두 한국인남편의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사례 2>의 여성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남편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자 먼저 남편의 ‘기분을 맞추어 주거나’ 자신이 ‘말을 시키는’ 전략으로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오히려 서운함이 없어졌으며, 남편의 성격도 변화하고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아내와의 ‘의사소통 부재’는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한국어를 배움에 따라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조선족 여성인 <사례 8>은 처음부터 언어 장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 없고 고집 센’ 성격으로 의사소통에 갈등을 겪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관심을 ‘말’로 표현하고, 자녀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며, 가족 외출, 종교활동 등을 같이 하면서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스타일로 전환하기를 요구했으나 남편의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강요’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갈등상황을 완화시켰다.

이들이 갈등에 대처해온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초기의 부부갈등을 부부관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호전시켰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부부갈등을 일으킨 또 다른 축인 송금갈등(7개 사례)은 대부분 남편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대신 아내의 취업과 소득으로 송금을 허용하는 부부간의 타협으로 갈등을 진정시킨 상태였다. 본 연구의 대상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수준으로(7개 사례), 일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다문화강사, 희망근로(4개 사례), 그리고 개인교습(1개 사례)으로 정기적 또는 일시적 소

득이 있어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송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정 송금은 여성의 취업이나 소득이 계속되어야만 가능하며,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 보조의 일자리와 지원이 없다면 이들의 소득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금으로 인한 갈등은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 2) 가족관계의 정립

이주여성들은 부부관계에 우선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처음에는 남편과 시부모, 형제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으나 차츰 이들과의 관계를 ‘자원’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사례 8>은 남편이 많은 남자형제들 중 중간 순위에 있어 순위와 손아래 형제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만만한 아들’로서, 시어머니와 미혼의 시동생들과 동거하는 ‘말이 아닌 말’ 역할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부부관계보다 부모나 형제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으며, 시모나 시숙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형수들과 달리’ 튀는 행동으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응하기를 원했다. 또 어려운 가계를 돕기 위해 취업하려는 의지를 시어머니나 시숙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간섭하는’ 가족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어 초기에는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점차 ‘가부장적인 대가족’에서 형제간에 사이가 좋으며, 동서들도 나이 차이가 많아 서로 잘 이해하며, 시숙이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화목한 가족애’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남편이나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노력하였다. 가족들도 그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칭찬과 신뢰를 아끼지 않으며, 이들의 정서적 지원이 이후 한국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생소했던 대가족문화에 스스로 ‘들어가’ 가족 관계를 수용하면서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이들이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든든한 ‘자원’이 된 것이다.

<사례 1>은 남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나 남편과 공유하는 생활이 거의 없으며, <사례 4>는 남편과 부부로서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이들은 결혼생활 초기를 지나 자녀를 낳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남편의 도움이나 지지를 포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남편의 지지나 상호작용이 없는 부부 관계에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시어머니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에 매일같이 ‘고마움’을 표시한다. 또 며느리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서 ‘남편 대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행사 참여를 열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모습에 ‘나보다 낫다’며 격려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어머니의 지원은 ‘딸처럼’ 시부모를 대하고 ‘친정부모와 똑같이’ 모시는 며느리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혼 초 아내의 생활 적응을 위한 안내나 도움의 역할을 하지 않거나, 일하는 아내를 도와주지 않으며, 아내를 시간과 활동을 같이 하는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는 남편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갈등원이거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인 것과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한편 <남성사례 2>와 <남성사례 4>는 아내의 친정송금으로 부부갈등을 겪었다. 특히 <남성사례 4>는 연애할 당시 아내의 출국을 위해 송금한 돈으로 장모가 아내의 대학교육을 위해 진 빚을 갚는데 알리지 않고 쓴 일로 언쟁한 후 송금에 대해 부부가 매우 ‘예민한 상태’이다. 그는 아내

의 친절을 최대한 지원해주고자 하지만 예기치 않은 장모의 질병으로 송금을 해야할 때, 아내가 번 돈을 알리지 않고 송금한 한참 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갈등’을 느끼며 아내 또한 남편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처지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남성사례 2> 역시 아내와 가족의 계속되는 무리한 송금 요구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보다 친정지원만 생각하는 태도로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각각 장모를 초청하여 장모가 아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일하거나 장모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자 송금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된 상태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장모를 초청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주여성이 시어머니로부터 신체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관계를 굳혀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친숙한 장모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망에 새롭게 편입시켜 송금으로 불거진 부부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3) 사회적 관계의 정립

흔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관계망은 자국민에게 국한된다(김현숙, 2006; 홍달아기 외, 2006; 김희주 외,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화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3개 사례)이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남편의 지지를 ‘대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사례 2>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체계를 찾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해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사례 4>는 긍정적인 성격에 남다른 노력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들의 지지로 더 많은 교육기회를 얻고 지역사회를 벗어나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과 행사에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주여성이 사회적 지지체계를 잘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부족한 관계망을 보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운 <사례 3>은 본인의 소극적인 성격과 한국문화를 수용하거나 반대로 본국문화를 유지하려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국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그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기본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능을 하는 ‘일시적인 자원’에 불과하다. 영어를 사용하는 <남성사례 4>의 아내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고 영어 사용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국어교육에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일을 하거나 자아성취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남편과 갈등상황에 있지만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해 한국문화를 배워보려는 노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영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도를 하기 보다는 반대로 한국사회에서 어려운 자아성취를 모국에서 펼치기 위해 ‘귀향’을 원한다. 이러한 대조적인 사례들을 통해 개인의 의지나 노력,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지체계를 자신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방식과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갈등양상의 특징과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존 이론과의 비교, 그리고 갈등과 갈등대처전략과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의 양상은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다문화가족 부부의 갈등양상(손은목, 2004; 신경희외, 2006; 이아진 외, 2011; Lee, 1996)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부부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관계, 문화적 차이 등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가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하면서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갈등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역할갈등은 초기에는 성역할갈등에 집중되나 후기로 갈수록 자녀교육자로서의 역할갈등으로 그 양상이 변화되었다. 자녀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이 되면서 학업지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사춘기를 맞을 때 남편과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거나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일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여성과 달리 가계의 경제권을 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 반면 친정송금을 둘러싼 갈등은 매우 깊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아들과 딸이 구분 없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으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부모님을 원조했고 결혼한 언니의 생활비나 조카의 학비 대주(김희주 외, 2007) 출신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송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받는 경우도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한국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친정가족을 부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친정가족보다는 시가족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부장 중심의 문화이므로 이주여성이 원가족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역할과 의무는 한국인남편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

이었다. 그러므로 송금갈등은 단순히 가난한 가족에게 원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문화와 출신국의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적 차이로 해석해야 한다. 호주 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갈등을 연구한 Woelz-Stirling(2000)도 돈을 버는 행위나 재정의 통제 및 분배는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재정적 갈등을 문화적 태도라는 배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러므로 송금갈등은 경제적 갈등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부갈등의 양상이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되므로 부부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지배적인 이론이 부각되기 보다는 부부의 자원, 성역할, 부부관계, 문화적 차이 등을 제시하는 여러 이론이 각각 갈등의 일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사례 4>의 아내의 언어와 학력은 자원이론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여성에 비해 유리한 자원으로, 가정 내 의사결정이나 부부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부의 경우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아내의 영어 사용이 남편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였고, 결혼 후에도 한국인들이 ‘우러러보고 존중한다’고 남편이 느낄 정도로 ‘차별화된 자원’이다. 더구나 아내가 영어 개인교습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욕도 충족되고, 송금으로 인한 갈등도 완화시킬 수 있어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이론에서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한다면 여성의 자원은 부부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자원이론에 반론을 제기한 것처럼, 본 연구의 사례(사례 1, 3, 8)에서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남편들은 아내의 일이나 소득, 경제적 기여와 무관하게 일하는 아내를 도와주거나 지지하기 보다는 여전히 아내의 이중노동에 무관심하며 도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사례 중에는 남편들이 아내와의 의사소통

과 상호작용에 서툰고(사례 8),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하는 경우(사례 1, 3, 4)도 많았다. 남편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지지 부재는 여성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갈등이었으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낄 만큼 부부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관계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배우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식생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고되었고, 부부관계, 친족관계, 자녀양육방식, 전통과 관습 등 광범위한 문화 차이는 부부 모두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원이었다. 또 새로운 문화와 모국 문화의 가치 및 특성의 관련성에 따라 여러 유형의 문화적응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Berry(1976)의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들이 고루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들의 부부갈등은 그들의 출신국과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므로 갈등의 측면과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다.

셋째, 갈등대처전략은 성별과 개인적 역량에 따라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타협이라는 대처전략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사용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친절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을 스스로 낮추는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기재로 사용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함으로써 성역할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한 사례가 대조적이다. ‘사회적 성취’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와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는 상황을 의미하며,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 달성 가능성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국에서 영어를 사용한 여성의 경우 영어능력을

활용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동시에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모국어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은 물론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어나 일어를 구사하는 여성이 ‘타고 난’ 자원을 통해 이주여성으로서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자원 없이도 헌신적 노력을 통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전략이 사용된다는 것은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개인적인 성향과 노력에 따라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갈등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대처전략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부의 가치관 및 태도의 차이,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한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상호 이해와 양보전략이 유용했다. 즉, 이들은 언어소통이 원활해지자 자신을 표현하고 대화가 가능해지며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의사소통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불신이 감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자신이 노력해도 배우자의 성격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때 ‘포기’라는 부정적인 전략도 사용되고 있었다.

역할갈등에 대해서는 타협전략이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과중한 역할에 대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성역할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일부 남성들은 스스로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성역할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있었다. 송금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역시 타협전략에 의해 주로 여성이 일을 찾음으로써 소득이 생기자 이를 친정에 송금하고, 아내가 번 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이 묵인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었다.

남편과 시부모의 지원은 이주여성의 가사나

양육 지원, 정서적 지원, 모국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수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지원은 이주여성이 초기에 한국생활에서 부딪히는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전략이었다. 특히 아내와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를 지지해주고 생활을 지원하는 시부모의 태도는 며느리의 문화적 적응을 도와줌으로써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킬 뿐 아니라 부부의 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아내 또는 남편의 헌신적 노력과 긍정적인 성격이 갈등을 해소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부부 상호간의 이해나 타협, 지원, 시부모의 지원 등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들이 불가능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는 ‘소극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이주여성의 적극적인 문화적응의사가 대처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 습득, 성역할, 확대가족에 가까운 가족문화 등에 적응하고 한국문화에 동화되려는 의지 등은 문화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을 수용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도움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지지체계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희망근로사업 등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 기관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한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회적 성취감, 소득 창출의 효과를 주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 제공되는 희망근로 등의 단기성 일자리는 일부여성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대처전략으로서의 기능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과 지원의 범위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딜레마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이주 초기에 있는 여성들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일부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입국 초기를 지나 중기에 들어선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이나 자녀 성장에 따른 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전략은 갈등의 양상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달리 전개되지만, 그 핵심에 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관계적 맥락에서 대부분 시도되고 해결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들을 주 대상으로 표집한 결과 어느 정도 문화수용 의사가 있거나 문화적응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 부부의 갈등과 대처전략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동시에 면접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주여성들이 심층면접에 큰 거부감이 없이 응한 반면 그들의 남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표집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상황에 대한 부부의 갈등적 반응과 대처전략에 대한 해석을 수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진술한 갈등과 대처전략은 부부 양자의 경험이나 의견이 아니라 접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심층면접의 대상자가 17명에 불과하며, 거주지역이 1개 도시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거나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부부갈등에 대한 대처전략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갈등이 봉합되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인 노력과 이해, 양보, 타협 등의 전략은 한국인남편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금까지 선행연구(강유진, 1999;

신경희 외, 2006; 박경동, 2007)에서 지적되었던 한국남성들의 준비 없는 국제결혼, 문화 차이에 대한 무관심과 한국문화 동화 강요,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스스로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지만 남편과 시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지원 받는 여성들이 큰 갈등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해나가는 사례들을 통해 부부관계는 부부의 노력 뿐 아니라 시부모,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을 기반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발견한 의의가 있다. 반면 남편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여성이 시어머지의 지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례는 많은 사례에서 ‘갈등적 관계’로 보고된 고부관계가 ‘긍정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관계를 확립하고 그 관계를 자신의 갈등 해소와 적응에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하듯이 한국인남성들도 장모를 자신의 가족의 범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내와의 가사노동, 육아, 송금문제에서 발생된 갈등을 해소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망 확대’는 결혼의 국제화에 따른 한국가족의 재구조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2) 김두섭·이명진(2007). 국제결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 33-56.
- 3)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18(1), 1-16.
- 4)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 5) 김연수(2007). 서울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6)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7)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김은경(2010).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12.
  - 9) 김이선·김민정·한진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10)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현숙(2006).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163-176.
  - 12) 김현숙·김희재·최송식(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5.
  - 13) 김희주·은선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겨울, 33-66.
  - 14) 남복현(2010).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장원.
  - 15)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변화순(1994).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17)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8) 손은목(2004).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신경희·양성은(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20)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 21)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아진·최연실(2011).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 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1), 71-90.
  - 23)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적요인-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24) 채옥희·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25) 최연실·권용혁·김태성·우실하(2007). 한·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회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26) 통계청(2009a). 2008 이혼통계.
  - 27) 통계청(2009b). 2008 혼인통계.
  - 28) 현은민(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 부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45-58.
  - 29)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

- 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 회지, 15(5), 729-741.
- 30) Allman, R. L., Dennis, T. J., & Written, P.(1978). *Abnormal Psychology in the Life Cycle*. New York: Happe and Row Publisher.
- 31) Ataca, B. & Berry, W.J.(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a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32) Berry, J. W.(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Halsted.
- 33) Blood. R. O., Jr., &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 34) Canary. D. J., & Spitzberg, B. H.(1989). A model of the perceived of conflict strateg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5, 630-649.
- 35) Chinitz, G. J., & Brown, A. R.(2001). Religious homogamy, marital conflict, and stability in same-faith and interfaith Jewish marriag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 Study of Relations*, 10(2), 153-174.
- 36) Coleman, J.(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NY: The Bobbs-Merrill.
- 37) Felmlee, D., & Clark-Ibanez, M.(2004). Interethnic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293-305.
- 38) Godwin, D. D. & Scanzoni, J.(1989). Couple consensus during marital joint decision making : A context, process, and outcom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43-956.
- 39) Goldman, M.(1999).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 Meeting ists goals in protecting battered immigrant wome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7, 375-392.
- 40) John, W. Creswell 저,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 공역(2011).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 학지사.
- 41) Johnson, W. R., & Warren, D. M. (1994). *Inside the mixed marriage: Accounts of changing attitudes, patterns, and perceptions of cross-cultural and interracial marriages*. L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42) Kluwer, E. S., Heesink, J. A. M., & Van de Vliert, E.(1996).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58-969.
- 43) Lee, E.(1996). Asian American Familes: An overview. in M. Mcgoldrick, J. Giordano, & J. K. Pearce (ed),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Inc.
- 44) Mahler, S.(1995). *Salvadorians in Subrbia: Symbiosis and collicts*. Boston: Allyn and Bacon.
- 45) Menjivar, C.(2000). *Fragmented ties : Salvadorian immigrant networks in America*. Berk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46) Min, P. G.(1998). *Changes and conflicts: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New York*. Boston : Allyn and Bacon
- 47)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 48) Scanzoni, J. & Szinovacz, M.(1989). *Family decision-making : A developing sex role model*, Beverly Hills, CA : Sage.
- 49) Sprey, J.(1971).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1), 41-51.
- 50) Sprey, J.(1979).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un marriag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Y; The Free Press.
- 51) Woelz-Stirling, N., Manderson, L., Kelaher, M., & Gordon, S.(2000).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Philippine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791-805.

- 투 고 일 : 2011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2월 21일